

DAVIC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DAVIC 분과위원회는 DAVIC 표준활동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표준 적용 활동 등 국내외 수요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표준에 입각한 기술모델을 개발하고 국제회의에서의 국내업계 의견을 개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멀티미디어 기술표준화에 대한 업계공동의 노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송 관 호 DAVIC 분과위원장

추진경과

- '95년 : 멀티미디어협의회, DAVIC 활동참여 계획 수립
- '96년 2월 : DAVIC을 위한 국내 업계 연합체 구성 논의
- '96년 3월 : DAVIC World 주요인사와 DAVIC 분과 구성에 관한 협의
- '96년 3월 : 멀티미디어협의회, DAVIC 분과 신설 의결
- '96년 4월 : 한국전산원으로부터 DAVIC 표준화에 관한 연구 수탁(진행중)
- '96년 5월 : DAVIC 분과 구성 및 활동준비 회의
- '96년 5월 28일 : 멀티미디어협의회 DAVIC 분과 구성 및 가입안내
- '96년 6월 : DAVIC 분과 참여기관 모집 1차완료

- '96년 6월 : DAVIC World 가입
- '96년 7월 : 제1회 DAVIC 분과 세미나 개최
-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 있어 DAVIC 표준의 응용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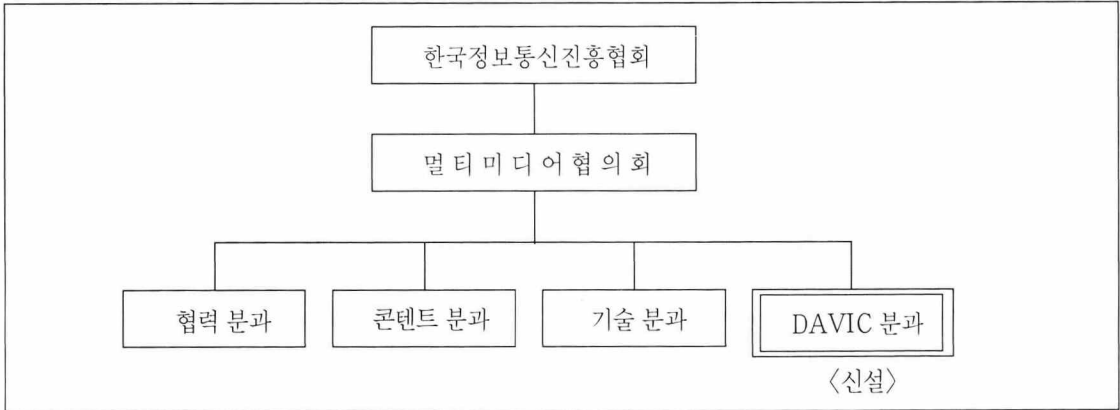
활동목표

국제적인 업계 표준활동 기구인 DAVIC 참여를 통해 사실표준의 즉각 수용 및 국내 대처방안 모색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표준 규격을 제정 추진하며, 멀티미디어 관련 응용서비스 개발 및 표준에 관한 중소기업체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활동내용

국내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DAVIC 사실표준

분과위원회 구성체계



수용 및 표준화 동향분석 및 DAVIC 사실표준의 구현기술 연구 및 적용 연구와 DAVIC 국제회의 참가 및 국내 유치를 하며 DAVIC 표준활동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원 및 의견 총괄을 대변하며, DAVIC 표준에 대한 최신정보 및 자료수집, 공동 참여업체에 배포를 통한 DAVIC 활동안내 및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전략

중소정보통신업체 중심으로 운영하며,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국내 설정에 가장 적합한 사실표준을 수용하며, 통신업체, 컴퓨터업체, 방송업체, 연구기관 등 AV서비스에 관련된 기관들과 공동 규격을 추진하며, 참여기관간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표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DAVIC-KR 분과 참여업체간 표준 관련 현안을 협의하여 DAVIC 회의개최시 의견을 개진한다.

그 결과로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초고속 응용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체계 구축 및 규격을 확보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표준화 기술을 향상시키고, 멀티미디어 관련 국내 기술을 향상시킨다.

산업·경제적 측면으로는 국내 멀티미디어 응용서

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양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멀티미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게 된다.

참여기관

지난 7월 10일 현재 LG정보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22개 업체와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5개의 대학, 그리고 한국전산원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향후계획

향후 계획으로는 DAVIC 분과위원회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되는 DAVIC 표준 정보를 디스트리뷰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96년 9월 DAVIC 표준화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결과 제출 및 초고속망 표준으로 적용을 건의하고 연구결과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하게 된다.

초고속망을 통한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제를 도출하고 '97년 정부출연연구지원사업으로 신청 및 수행방안을 강구하여 기술개발 과제 도출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초고속망 및 차세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